

날지 못하는 참수리 건지 못하는 코끼리 : 동물복지는 먼 얘기

전주동물원 곰 우리



슬픈 동물원

<2>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할까



대만 타이페이 동물원 오랑우탄 우리. 이 우리엔 나무타워와 습지 등 오랑우탄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

일생을 갇혀 사는 것도 억울한데, 비좁은 철망 우리 안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물들.

야생 뿐만 아니라 안락한 삶조차 잃어버린 채 '갑육'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광주 우치동물원과 전주동물원 동물들의 열악한 현실이다.

동물원이 생긴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열악한 시설은 여전하다. 과연, 동물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물원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일까.

광주일보가 최근 광주 유일의 우치동물원 시설을 확인한 결과, 우치동물원은 일부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맹수 우리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가 하면 몸을 숨길 공간을 찾지 못한 맹수들은 불안한 듯 뱅뱅 돌고 독수리·참수리는 공간이 비좁아 날지 못했다.

최근엔 국내·외 많은 동물원들이 동물 복지 개념을 도입한 동물 존중형 동물원으로 바뀌는 추세지만 우치동물원에선 동물의 존엄성·복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면적 153㎡(46.2평)·높이 6m의 우리에 사는 참수리는 비좁은 공간에서 날기는 커녕 날개조차 자유롭게 펴지 못해 강박적으로 수도꼭지를 부리로 쪼고 있었다.

코끼리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50km로 행동반경이 넓고 사회성을 가진 동물인데, 우리는 고작 354㎡(107평)에 불과했다. 현재 이들 코끼리는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정형행동(의미가 없는 행동을 일정한 행위로 반복하는 행위)을 보이고 있다.

또 영장류인 침팬지 우리(면적 502㎡·151.8평)는 개체에 걸맞은 시설이나 자연과 흡사하게 먹이 주는 행위 등 동물행동풍부화 시설이 거의 없었다.

호랑이·사자 우리는 바닥이 딱딱한 구조로 돼 있으며 좁고 은신처도 없어 맹수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기린은 자신의 눈높이에 나뭇잎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바닥에

광주 우치·전주 동물원 열악한 환경

비좁은 철창·콘크리트...야생성 퇴화

동물 존중형 행동풍부화 시설 필요

난 풀을 고개를 숙여 뜯어먹고 있다.

전주동물원 내 곰·호랑이 등 일부 맹수사는 면적이 46.28㎡(14평) 미만으로 매우 비좁았다. 또 바닥은 콘크리트로 돼 있었으며 은신처는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최장살로 된 흰꼬리수리 우리는 겨우 4~6m 정도 날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으며, 파충류사는 물론 하마·코끼리·기린 우리도 이들이 생활하기에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들 동물원의 경우 동물의 존엄성·복지보단 사육사들이 관리하기 편한 구조로 지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물보호단체 등 전문가들은 "전시관을 동물의 생태습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해야 한다. 리모델링 땀 동물의 건강을 고려, 바닥에 흙과 풀을 충분히 깔아주고 면적을 충분히 넓혀 무료함을 피하고 행동풍부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은 야생에서 먹이를 얻거나 쉼터를 찾고 짝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경쟁자와 싸우는 등 일련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동물원에선 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만큼 이들을 배려한 최소한의 행동풍부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곰 사육장 나무뿌리에 풀을 발라놓고 이 냄새를 맡은 곰이 나무 주위로 나타나 풀을 찾아 먹도록 해주거나 오랑우탄에게는 고공 그늘집을 만들어주고 겨울에도 야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온풍기·열선을 설치해 준다.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스스로 먹이를 찾게 하고 나무 숨을 곳이 필요한 동물에게 은신처를 만들어 주는 등 해당 동물의 서식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프로그램.

또 침팬지 타워를 만들어 높은 나무에 오르려는 본능을 살릴 수 있도록 꾸미고, 바버리양들을 위해선 돌산을 쌓고 먹이를 넣은 공을 때달아 마치 바위 틈에서 자란 키 낮은 나무에서 먹이를 따 먹는 느낌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물들은 더욱 건강해지고, 관람객들은 더 흥미로운 장면을 관람할 수 있다.

시설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성과도 나타났다.

서울동물원이 2년 전부터 자연친화적 서식환경을 조성한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동물들의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동물원 지난 2012년 1월~5월까지 5개월간 태어난 동물이 총 34종·111마리라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지난 2009년부터 동물전시 개념의 동물원에서 탈피해 동물들이 행복한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동행 동물원 사업을 펼쳤을 결과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인 전경옥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단순히 먹이를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한다고 동물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동물복지의 개념이 결합된 동물원으로 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광주우치동물원 코끼리 우리.



광주우치동물원 내 불곰.

(주) 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광주본부 광주시민회관

8월 1일(금) 무박2일 정동진/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기차여행

시간	일정
20:0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관광
14:20	동해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3:00	광주역/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

8월 8일(금) 무박2일 정동진/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기차여행

시간	일정
20:00	광주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관광
14:20	신기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2:00	광주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

